

# 영화 속 재난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그 성찰

- <괴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cial Implication and Reflection on the Disaster in the Film - focusing on 'The Host'

유문무\*

〈목 차〉

I. 문화연구와 영화	IV. '괴물', 그 이후 - 성찰과 전망
II. 재난과 재난영화	V. 결 론
III. '괴물'의 탄생과 대응	

### 〈요 약〉

문화가 당대 사회적 현실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문화의 주요 축인 영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텍스트로서의 영화는 작가와 독자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은유적 표현물이며, 수많은 담론들이 교차하여 가로지르는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다. 영화 속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의식은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궁극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의 한국영화 중 재난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괴물'을 중심으로 재난의 사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성찰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열린 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괴물'은 넓게 보아 탈식민사회에 작동하는 제국주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로 분석 가능할 것이다. 근대와 탈근대, 식민과 제국, 지배와 피지배, 주체와 종속, 정부와 시민 그리고 이것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권력의 배분과 작동에 관한 논의를 열어 주고 있다. 이 논의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재인식, 근대화에 대한 성찰, 정부의 신뢰제고,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의 성숙이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주제어: 문화연구, 재난, 사회적 성찰, 탈식민사회, 제국주의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 I. 문화연구와 영화

지금 한국사회는 영화전성시대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주제의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산업 측면이나 질적 수준에서도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영화의 본고장이라 할 할리우드에 수출을 하고,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도 쾌거를 올리고 있다. 수백만 관객을 사로잡는 영화 역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sup>1)</sup> 이에 문화가 당대 사회적 현실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문화의 주요 축인 영화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곧 영화분석은 문화연구로서, 구체적인 문화 안에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내재해 있는 의미와 가치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현대사상, 1997:66). 더욱이 문화는 지속적이면서 모순적인 사회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생활방식으로, 대단히 역동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권력관계가 매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그러하다.

문화연구 대상인 텍스트는<sup>2)</sup> 해석과 담론과정을 담지하면서 작가와 독자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은유적 표현물이다. 작품은 어떤 메시지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적 담론들이 교차하여 가로지르는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다. 즉 작품은 언어, 이미지, 이념 등이 일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생성시키고, 동시에 발화자를 수신자에게, 작가를 독자에게, 개인이나 집단을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연결시키는 문화적 의사소통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연계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작품은 사회를 은유적으로 인식한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 속에서 작가와 독자는 각기 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장치 만들기’와 ‘장치 해석하기’의 놀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작가의 사회적 의식은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궁극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작품은 시대의 현실에 대해 열려 있다. 이렇게 열린 작품 속에서의 기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작품 속에 담긴 다양한 메시지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기표의 표층부

1) <괴물> 이전 한국영화 흥행성적을 보면 <왕의 남자, 2006> 1230만명, <태극기 휘날리며, 2004> 1174만명, <실미도, 2004> 1108만명, <친구, 2001> 818만명, <웰컴 투 동막골, 2005> 800만명, <쉬리, 1999> 621만명, <투사부일체, 2006> 610만명,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SA, 2000>, <가문의 위기, 2005>, <살인의 추억, 2003>등이 500만명을 넘었다.

2) 문화연구의 대상인 텍스트(text)는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모든 문화적 산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책, 텔레비전전, 영화, 포스터, 광고 등 독자적인 미디어 형태를 지칭한다.

를 더듬으며 그 안에 있는 기의의 다중망을 포착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미로에의 도전을 하는 해석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박상진, 1997:75).

사실 현실이야말로 고정된 것, 한가지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규정될 수 없고 가변적이며 불확실하고 순간들로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다. 그러므로 작품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지배적 이념이나 세계관에 의해 파악되고 정해지지 않은 진정한 현실 그 자체를 담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작품이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열린 작품의 논의가 단지 암시와 감정 자극의 차원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즉 작품이 열려있다는 것은 논쟁이 열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Umberto Eco, 1962:45). 이 논쟁을 통한 해석과정을 거쳐 관객은 혹은 독자는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현실에 참여하게 된다. 즉 주체가 세계에 실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과정은 바로 해석의 차원에서 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최근에 상영된 한국영화 중, 재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괴물’을 중심으로,<sup>3)</sup> ‘괴물’이 갖고 있는 재난의 사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성찰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재난과 재난영화

재난영화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재난영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결국 재난의 개념이나 유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재난을 크게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으로 구분함에 따라, 재난영화도 자연의 파괴적 힘에 의한 재난을 다룬 영화와 문명의 이기에 의한 재난을 다루는 영화로 대별할 수 있다. 재난이론 역시 영화 속 재난의 예방과 발생 그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난의 발생조건과 관리전략을 설명함에 있어 주요단서를 제공해 준다.

3) 2006년 11월 현재 <괴물>의 관객 동원은 1,302만 명으로, <왕의 남자>1230만 명을 넘어서 역대 한국영화 흥행1위를 차지하였다. <괴물>은 개봉 이후 그동안 각종 흥행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파괴력을 과시해 왔다. 문화현상의 논의 주제가 되어 MBC 100분 토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해외에서도 <괴물>의 명성은 높아져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각종 해외의 우수 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또 미국의 유니버설 영화사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기로 했고 일본과 동남아를 비롯하여 현재 캐나다, 영국에서 상영되는 등 각국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미국에서의 상영을 앞두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지는 <괴물>이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국으로 방출한 독극물사건에서 소재를 찾은 영화라는 것과 현재 북핵문제와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가입 여부를 놓고 한·미 양국이 미묘한 갈등을 벌이는 시기에 이 영화가 선보이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이 영화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1. 재난의 이론적 논의

### 1) 재난의 개념과 유형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재난관리법 제2조). 한편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정부의 통상적인 관리절차나 지원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인적 및 물적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재해구호기구(UNDP)에서는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사회간접자본시설·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의 유형은 주로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우선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호우, 태풍, 홍수, 폭설, 우박, 가뭄, 산불, 황사, 해일, 적조, 돌풍, 지진, 산사태 등이 있다. 다음 인위적인 것으로는, 화재, 가스누출, 교통사고, 공공스포츠 시설 및 유기장시설물 사고, 가스폭발, 방사능사고, 폭발물사고, 갱도붕괴사고, 화학공장사고 등이 있다. 인위재난은 모두 사람의 고의나 부주의에 기인한다. 즉 사회적·문화적 현상에 기인하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정도는 그 시대 그 사회가 처한 상황과 문화수준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공공성이 큰 도시기반 시설 재난이 있다. 건축물, 사회기반시설물(도로, 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도로, 댐, 항만, 공항, 정보통신시설 등), 에너지시설, 원자력발전소, 가스저장시설, 지역냉난방시설, 환경시설 등이 그것이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기능유지와 시민생활편의 때문에 도시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라 그 수요와 공급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다. 반면에 이들 시설로 인한 재난의 잠재요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특수재난이 있다. 공공테러, 연성테러, 불법군중시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재난 이론

첫째,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이다. 재난은 뜻밖의 사고가 아니라 배양의 과정을 통해서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위험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즉 재난발전의 초기 배양단계부터 사회 속에는 재난이 잠재되어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재난을 야기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사전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소위 위험평가에서 흔히 무시되었던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위험과 관련

된 조직문화의 맹점, 부적절한 정보, 의사소통의 문제점, 오차수정의 실패, 안전규제 도입의 실패 등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Turner, 1978).

둘째, 정상사건이론(Normal Accidents Theory)이다. 현대사회의 기술적 조직적 시스템은 복잡하고 팍 짜여져 있는데, 이러한 기술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다(Perrow, 1984). 그리고 체계복잡성의 증가와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 확장됨으로써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한편,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관리전략은 예방전략과 복원(resilience)전략이 있다.

셋째, 고신뢰 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이다. 재난은 사고예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복잡성과 팍 짜여진 체계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직의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는 예방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전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oberts, 1993). 고신뢰 이론은 정상사건이론의 비판적 측면에 대한 반발과 결정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통에 대한 수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2. 재난영화에 대한 이해

### 1) 재난영화의 의미

재난영화(Disaster Film)란 다수의 사람들이 자연적 혹은 인위적 재앙을 맞아 시련을 겪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이야기의 구조를 이루는 영화를 말한다(이승구 외, 1997). 유형은 대략 자연의 공격, 도시 내 재난, 괴물에 의한 공격 등으로 구분된다.<sup>4)</sup> 물론 그 출생지는 할리우드이다.

재난영화는 70년대 초부터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5)</sup> 이 당시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부문 전반에 걸쳐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실업문제와 물가양등, 기업부패를 동반한 경기후퇴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4) 이 시기의 재난영화로는, 자연의 공격을 내용으로 한 <새, 1961>, <조스, 1975>, <킹콩, 1976> 등이 있으며, 인위적 재난에는 <에어포트, 1970>, <타워링, 1974>, <포세이돈 어드벤처, 1975> 등이 있다.

5) 물론 70년 이전에 <킹콩, 1933>을 시작으로 몇 편의 재난영화가 제작되었지만, 주로 그 모티브는 문명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라기 보다는 자연의 두려움을 형상화하는 정도였다. <킹콩>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리바이벌 된다(김성곤, 1994).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 경제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위기는 좀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일으켰다. 여기에 대형 스펙타클 형식의 영화산업 전략이 재난을 통해 대중들의 불안한 사회심리를 파고들었다. 결국 이 기간에 나타난 재난영화는 이러한 미국현실을 배경으로 대중들의 불만을 형상화하였고, 그 결과 흥행에 성공하기 시작했다(마이클 라이언·더글라스 켈너, 1996:97-98). 90년대의 재난영화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90년대 후반 할리우드 재난영화들은 미국과 서구 기독교사회가 맞는 세기말적인 불안감을 산업적 전략으로 차용하여 영화화하였고, 그 결과 관객동원에도 역시 성공한다.<sup>6)</sup> 불안한 현실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영화 속의 재난은 안정된 정상성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기존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관례로 사용된다. 결국 할리우드 재난영화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할리우드 재난영화에서 이데올로기 창출을 수행하는 해결사들은 백인, 남성, 가부장적 인물, 기독교 등의 공통점을 갖는다.<sup>7)</sup> 이는 할리우드 재난영화가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반증이다. 곧 새롭게 도전받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 보수진영의 열망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서사구조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일종의 심리학적 방어기제로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특징적으로 내포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한편 80년대의 냉전시대를 지나 90년 들어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면서 이후의 재난영화는 미국 우월주의 이데올로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새롭게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미국의 열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다. 인류의 위기가 발생하면 그 해결자는 발달된 군사무기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희생정신을 지닌 오직 미국인만이다. 결국 할리우드의 재난영화는 미국의 지도력에 의한 세계평화를 보편적인 사실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강대국 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2) 재난영화의 특징

서사구조상의 특징은 대중들에게 이데올로기를 담을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안정된 상태가 일단 재난에 의해 무질서를 맞으면, 일련의 시련을 겪다가

6) <트위스터, 1996>, <인디펜던스 데이, 1996>, <타이타닉, 1997>, <딤 임팩트, 1998>, <아마겟돈, 1998> 등이 있다.

7)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타워링>이다. 거대한 불구덩이 속에서 재난을 해결하는 영웅은 백인 중간계급인 남성 소방수와 전문경영자인 백인 남성 건축가 이다. 또한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의 지도자는 목사로, 기독교 신앙과 가부장적인 강인한 지도력을 겸비한 백인 남성이다. 이러한 재난영화는 미국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백인 중간계급 남성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강내영, 2000:48).

한 명의 지도자나 구원자를 택하여 결국 재난을 극복한다는 단순한 구조이다. 이는 위기상황에서 구원자 역할을 맡은 ‘지도자’를 통해 불안한 심리의 대중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원형을 재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서사구조이다.

따라서 할리우드의 재난영화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공식을 갖고 있다. 태풍이나 화산폭발, 지진과 쓰나미, 혜성충돌, 외계인 침공 등 거대 자연과 우주의 물리법칙을 소재로 한 재난영화들은 한결같이 대자연의 위력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우선 등장인물 중 주요 역할들의 신분은 대부분 과학자나 엔지니어이다.<sup>8)</sup>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재난의 징후를 포착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주인공들은 대부분 괴짜 아니면 비주류출신이라 정부를 비롯해 관계자 등 재난관리의 주체들은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다. 결국 주변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러한 설정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클라이맥스의 극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임과 동시에 자연재해도 결국은 인재라는 점을 보여 주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재난영화의 백미는 영웅의 등장이다. 재난을 해결할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한 사람이 나타나고 곧 그의 결정적 희생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마지막으로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엔 항상 대통령이나 장관이 대국민성명을 발표한다. 게다가 이 연설은 전 세계로 전파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심지어 중동의 유목민까지 세계 각지의 환호하는 인파들을 담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적인 공식이다(세계일보, 2006.08.23). 그러나 할리우드 재난영화에서 재난은 영화적 플롯장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재난의 진정한 정체성은 당대의 사회적 공포심에 대한 문화적 표상과 사회적 기호로 작동한다. 즉 재난은 공포심에 대한 심리적 은유물로 자리하기 때문에 재난영화는 상업적 상품성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장르이다. 할리우드의 재난은 당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인종이나 남녀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의 재현일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는 제3세계나 테러국 등 외부위협세력에 대한 미국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다. 즉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적대자를 사회적인 스테레오 타입으로 타자화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결국 재난영화에서의 재난의 정체성은 당대 사회의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투사된 하나의 은유물이라 할 수 있다.

8) 화산폭발을 다룬 <탄테스 피크>나 <볼케이노>의 주인공은 지질학자이고, <투모로우>는 기상학자가 나오고, <아마겟돈>에서는 지질과 석유탐사의 전문가가 소행성을 대상으로 인류를 구한다.

### Ⅲ. ‘괴물’의 탄생과 대응

한국영화 ‘괴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사구조적인 면에서의 차이이다. 할리우드 재난영화가 일정한 공식을 갖고 있는 ‘닫힌 구조’ (closed text)에 기초하고 있다면, ‘괴물’은 ‘열린 구조’ (open text)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린 구조’의 작품, 곧 ‘열린 작품’에 담긴 것들은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이기에, 그 작품은 사회를 은유적으로 인식한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 속에서 작가와 독자는 각기 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장치 만들기’와 ‘장치 해석하기’의 놀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작가의 사회적 의식은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궁극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괴물로 상징되는 재난의 탄생과 대응과정 속에서 형상화된 사회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재난발생의 배경

##### 1) 환경적 측면

영화의 시작은 2000년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기한이 지난 다량의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하는 장면부터이다.<sup>9)</sup> 한국인 군무원은 미국인 상사의 지시에

9)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사건은 2000.7.13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슈화되었다. 이는 미육군 사망시 시체의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가 당시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 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의 명령에 의해 싱크대로 버려진 사건이다.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며,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앨버트 맥팔랜드는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다. 이 사건이 당시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7월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만을 통보하였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처리 후 두통과 메스꺼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는 위 사실을 녹색연합에 알려왔으며 위 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녹색연합은 미군이 버린 포름알데히드의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당시에 포착된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된 공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2000년 7월 24일 페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을 대신해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한국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가슴 깊이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전달했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를 한 것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2000년 12월 타결된 2



머뭇거리지만 ‘한강은 넓으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라’는 위로성 강요에 다량의 포르말린을 끝없이 쏟아 붓는다. 3년 뒤 이 독극물의 부작용으로 탄생된 엄청난 크기의 ‘괴물’이 갑자기 평온한 일상의 한강에 나타나 시민들을 공격한다.<sup>10)</sup> 이 와중에 한강 구석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강두의 딸 현서가 괴물에게 납치를 당한다. 영화는 이때부터 가족들이 현서를 구출하기 위해 괴물과 벌이는 사투를 따라간다.

## 2) 정치사회적 측면

‘괴물’에서는 많은 장면들에 이중적 장치가 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재난이란 부조리극같은 느낌이다”라는 감독의 인식에서 비롯된다(씨네21 493호, 2005.3). 이러한 장치는 우선 등장인물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현서의 할아버지는 소위 무지랭이 인생이지만 괴물과 맞서 싸우다 당당하게 생을 마친다. 현서의 아버지는 손님들의 오징어다리를 훔쳐먹다 들키고 시간만 나면 잠만 자는 한심한 존재이지만 ‘가장 깨어 있는 존재’이다. 현서의 삼촌은 한때 운동권에서 잘나갔다고 추측되는, 화염병투척과 ‘도바리의 천재’이나 괴물과의 싸움에선 기대 이하의 실력을 드러낼 뿐이다. 현서의 고모 역시 전국체전까지 진출하는 양궁선수이나 늘 한박자 뒤늦은 경기를 펼쳐 순발력과 담대함을 요구하는 전사로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양면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 재난의 원인 제공자이자

---

차 SOFA개정에서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조항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사록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미군기지 기름유출 의혹 등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맥팔랜드는 법정에서 출석했으며,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엘버트 맥팔랜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며 “단시간 내 상당한 양의 포르말린 용액을 버리게 한 죄질은 나쁘지만 항소심에서 법정에서 출석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10) 정성일은 <괴물>이 정치적 읽기를 요구하는 영화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괴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괴물’은 그 어떤 비유적인 ‘억압의 귀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군 부대의 “먼지 낀 폼알데히드” 무단 방류에 대한 생물학적 결과이다. 그 ‘결과’가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낙오한 채 자살한 남자를 잡아먹는다. 생각할 만한 지적. ‘결과적으로’ 잡혀 먹힌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가 다른 ‘결과’를 잡아먹은 것이다. 약간의 과장. 자본주의 시장의 ‘결과’를 분단체제하의 반식민지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의 ‘결과’가 잡아 먹는다”(정성일, 2006). 이에 대해 허문영은 <괴물>이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문제는 괴물이라는 대상의 해석이 아니라 명백한 대상을 보느냐 보지 않는가이다. <괴물>은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특정한 정치 노선이 반영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굳이 이름 붙인다면 그건 개인주의적이며 수평적 질서를 지향하는 세계시민적 태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허문영, 2006).

동시에 재난의 해결사로 존재한다.

재난의 과정에서 역시 비극과 희극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현서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은 가족들이 상가에서 벌이는 행동은 대단히 희극적이거나, 목숨을 걸고 비장하게 괴물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희극적 인물들이다.

다음 ‘괴물’의 존재다. ‘괴물’의 영어제목은 ‘The Host’이다. 영어단어 ‘host’에 담긴 뜻 역시 이중적이다(씨네21 493호, 2005.3). 생물학적으로는 기생동물의 ‘숙주’를 의미하며 동시에 ‘주인’이다. 괴물은 주인없는 사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느새 자리 잡은 주인이라 하겠다.

### 3) 공간적 측면

한강은 서민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이다. 낮에는 자전거와 인라인을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바람을 쏘이고, 밤에는 더위를 피해 모여드는 보통사람들의 한가로운 공간이다. 이런 평범하며 아주 익숙한 곳에서 괴물이 튀어나온다. 한강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젓줄이다. 젓줄이 상징하듯 강은 여성성이다. 곧 한강은 서울 시민들을 품어내는 어머니의 품인데, 미군이 무단 방류한 포르말린으로 그 어머니의 품이 더럽혀지고 어머니는 결국 괴물을 낳는다. 평온하게만 느꼈던 잔잔한 물 속, 저 깊은 곳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수년 동안 괴물이 자라오고 있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눈 한번 질끈 감은 행위의 대가로 말이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의 그 한강이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쳐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속 한강은 멋진 조명을 받으며 탄성을 자아내는 근사한 야경 속의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가 아니다(황두진, 2006). 운동권 출신 삼촌이 대기업에 다니는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려 시내로 나왔을 때 보여 주는 도시는 대기업과 바로 옆 골목에 붙어 있는 작은 구멍 가게를 동시에 보여준다. 소박함도 아닌 세련됨도 아닌, 실로 어정쩡한 모습의 도시일 뿐이다.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적 병존’이 존재하는 이중성의 도시이다. 전통과 현대, 유람선과 하수구, 근대와 탈근대, 식민과 탈식민의 속성을 담고 있는, 중심인듯 싶지만 실은 우리의 의식에서 벗어나 있던 주변성의 실재이다.

## 2. 재난대응의 형상화

### 1) 가족

괴물과 맞설 운명의 가족은 소시민들의 집합이다. 보잘것없는 외모의 할아버지, 그와 함께 한강 둔치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손님이 주문한 오징어 다리를 훔쳐먹거

나 아니면 즐기 일수인 한심한 아버지, 학생운동권 출신의 삼촌 그리고 굶뜨고 소심한 양궁선수 고모가 그들이다. 그리고 두 세대에 걸쳐 엄마가 부재하는 가족이다. 강두의 엄마도 없고 강두의 부인도 없다. 즉 현서의 할머니도 엄마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오직 한명 뿐인 여성인 현서의 고모 역시 활을 쏘는 궁수, 곧 전사의 이미지를 지닌 남성적 여성으로 등장한다.

가족 구성원은 세대별로 대표되는 시대적 상징의 인물들이다. 괴물에게 잡혀간 현서의 할아버지는 보리고개를, 아버지는 근대화를, 삼촌은 군부독재의 시대를 헤쳐 나왔으나, 결코 성공하지 못한 루저 곧 패배자들이다. 현서의 고모 역시 우수한 번도 못한 만년 ‘넘버 쓰리’이다.

이 가족이 괴물과 벌이는 싸움은 외롭고 고단하기만하다. 국가적 비상사태까지 동반한 괴물의 출현이지만 공권력의 개입은 부재하고 괴물체포의 모든 책임은 가족에게만 그 힘이 부여된 듯하다. 영화 말미에는 또 다른 루저 ‘부랑아’의 힘까지 보태어 사력을 다한다. 강두는 정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끌려 다니며 의료진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런 와중에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끼리는 서로 더 약한 사람을 돌보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괴물에게 잡혀가 죽음이 코앞인 상황에서도 현서는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보호하려 괴물과 맞선다.

## 2) 정부

정부는 한강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잡혀도 조사조차 않는다. 서울 한강 대낮에 괴물이 나타나 시민들을 공격하지만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다. 단지 합동분향소만 차려 주는 것 외에는 어떤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추측으로 실시되는 격리와 방역은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기만 한다. 딸의 핸드폰을 받고 생존을 확인한 아버지 강두가 정부에 구조를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이다. 오히려 자력으로 현서를 구하려는 가족들을 바이러스 보균자인 ‘괴물’로 만들어 방해만 할 뿐이다.

공권력은 자신의 무능과 억압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무능하고 냉담하다. 한국의 경찰, 소방, 의료진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구청직원은 방역활동을 나온 회사직원들한테 ‘뺑’을 뜬다. 괴물이 살고 있을 한강 다리 설계도를 얻는 데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 원에 산다. 그나마 손으로 그런 조잡한 설계도다.

재난을 겪으면서 믿을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강두가 총한자루에 의지한 채, 바람이 불어 대는 한강의 어둠을 응시하며 주위를 살피는 마지막 장면은 정부의 공백과 무능력 그리고 불신의 절정을 보여준다.

### 3) 미국

미국은 괴물출현으로 인한 한국의 비상사태에 직접 개입하여 사태해결의 노력을 보인다. 괴물에 대한 모든 정보는 미국에서 나온다. 미국은 정보를 독점한 채 무능한 한국정부에 대책을 명하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세계보건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유해물질 ‘에이전트 옐로우’를 살포한다. 국제경찰의 면모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진실로 ‘미국’ 적이다. 바이러스를 찾으려 안하무인격으로 뒤집고 다니던 미국 의사는 결국 강두의 뇌까지 쪼갬 후 ‘no virus’를 외친다. 이라크 전쟁 도발 시 공격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가 나타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no weapon’을 내뱉는 모습의 오버랩이다.<sup>11)</sup> 미국은 모든 정보를 독점한 절대기관이다. 시민의 삶의 문제는 안중에 없는 권력으로, 한국의 주권을 담보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영화 속에서 괴물을 잡으려고 설치한 ‘에이전트 옐로우’는, 베트남전 당시의 악명 높은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sup>12)</sup>를 답았다. 미국은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여 괴물을 만든 장본인이지만 책임추궁은 커녕 괴물의 출현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

### 4)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조속한 괴물의 체포나 정부의 무관심을 비난하는 그 혼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는다. 이들 역시 괴물의 존재나 시민들의 안전 따위에는 무관심하다. 다만 ‘에이전트 옐로우’의 환경오염을 규탄하는 시위를 할 뿐이다. 시위대는 신

11) 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9·11테러사건)이 일어난 뒤, 2002년 1월 미국은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워 동맹국인 영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2003년 3월 17일 48시간의 최후통첩을 보낸 뒤, 3월 20일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 남동부 등에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였다. 작전명은 ‘이라크의 자유’(Freedom of Iraq)였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결국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못하자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결과로 대량살상무기는 없다(no weapon). 그러나 후세인을 제거했으니 세계평화에 기여한 셈이다’라는 성명을 내놓기에 이른다. 현재 이라크 전쟁은 ‘자유수호’전쟁이 아니라 ‘석유자원침탈’전쟁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12) 에이전트 오렌지란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고엽제를 일컫는 말이다. 고엽제는 베트남에서 나뭇잎의 성장을 억제하여 정글에서 적군의 근거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다이옥신계열 제초제들이다. 미국은 지난 1961년부터 1971년까지 4천400만리터의 고엽제를 베트남 주요작전지역에 비행기로 살포했고, 이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170kg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969년 동물실험에 의하여,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킨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1971년에는 살포가 중지되었다. 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 보고 베트남전쟁 이후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7만7000여명이나, 국내에만 약 38만명의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문화일보,2005.04.29).

장개업 때 광고에 쓰이는 미친 듯이 흐느적거리는 대형 바람풍선을 앞세우고 시위를 벌인다. 그들은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설정한 이념과 목표를 위해 습관처럼 싸울 뿐이다. 마치 바람에 미친듯이 흔들어대는 풍선의 허황된 꼭두각시 춤처럼 말이다(씨네21 567호, 2006. 08).

괴물과 싸우는 것은 전직운동권, 만년 3등 양궁선수, 노숙자, 도시빈민 그리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이 모인 ‘연대’이다. 이들의 무기는 화염병과 활이 고작이다. 그러나 화염병은 한번도 맞지 않고, 화살 역시 명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염병을 놓치기까지 한다. 결국 화염병과 화살이 하나가 되어 괴물을 불로 쓰러뜨리지만 현서는 구하지 못한다. 70년대와 80년대의 저항운동, 시민운동, 학생운동의 한계를 투영하고 있는 듯 말이다.

### 5) 언론

영화 내내 공권력이 괴물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장면은 한 번도 없다. 체제는 오직 미디어를 통해서 괴물을 창조해 내고 그것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려 한다. 괴물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통제하려 온 공무원은 정작 괴물에 대해 알거나 설명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TV에 다 나온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즉 재난에 관한 한 미디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한강을 터삼아 성장해 온 ‘그것’은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 비로소 신종 바이러스의 숙주로서 비로소 공포의 대상인 ‘괴물’이 된다. 그러나 소시민들의 일상세계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미디어는 찾기 힘들고 그림이 되기 힘든 진짜 괴물 대신, 강두 삼남매를 바이러스 보균자로 ‘확신’하고 수배자로 ‘낙인’ 찍어 괴물로 ‘만드는’ 순간 그 힘의 절정을 보여 준다. 강두 가족이 병원을 탈출한 뒤에 양궁선수 남주에 관한 뉴스가 TV에 나온다. 제목은 ‘도주한 신궁’이다.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결코 신궁이라 불리지 않지만, 뉴스에서는 소위 섹시하고 선정적인 제목의 필요성으로 ‘신궁’으로 격상된다. 이어 ‘바이러스 보균자 관리 엉망’이라는 제목에 나오는 자료화면은 남주가 동메달을 딴 뒤 동료선수와 악수를 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한다. 그러나 괴물이 한강에 처음 나타났을 때 이 ‘신궁’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다. 전능한 미디어는 이미 괴물을 만난 적도 없는 신궁이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을 겪으면서 익히 언론의 속성을 체득한 강두에게 이제 언론은 그저와글와글 떠들어만 대는 시끄러운 존재일 뿐이다. 현서가 구한 아이와 함께, 세찬 바람이 불어대는 한강변 매점에서 저녁을 먹던 강두에게 TV뉴스에서 호들갑스럽게 흘러나오는 ‘바이러스 긴급뉴스’는 그저 밥먹는데 방해만 되기에, 강두는 발가락으로

TV를 눌러 꺼버린다.

## IV. ‘괴물’, 그 이후 -성찰과 전망

### 1. 주체와 식민의 변증법

‘괴물’ 속의 미국은 세계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국가 그 자체이다. 바이러스를 찾아 세계를 구하려는 미국은 강두를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가 뇌실험까지 감행한다. 간신히 병원을 빠져나온 강두가 목격한 것은 미군이 바베큐를 구워먹으며 벌이는 파티장면이다. 사실 그 곳은 병원이 아니고 미군이 급조한 컨테이너 박스였다. 미국은 바이러스 발견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도 꺼리지 않고, 한국정부의 입장 역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한국정부는 안중에도 없다. 아니 오히려 한국정부는 괴물이 출몰한 지역을 아예 미국에게 내주고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있다. ‘괴물’은 이 지점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발상과 그 행동에 대해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1945년 9월 제국주의 군대로서 미군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들여 놓으며 냉전과 분단구조를 생성시킨 이후, 60년 동안 한국이 식민의 경험을 겪고 주체의 정립을 고민하면서 마련된 시각이다.<sup>13)</sup>

미국은 지난 60년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의 제 국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한국인에게는 생존과 발전을 거머쥔 중요한 국가로 자리하였다. 이에 한국은 자의든 타의든 싫든 좋든 미국을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타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인의 삶과 의식 속에 미국적인 것의 영향과 수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는 시대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폭의 확대와 함께 변화를 거듭하였다.

해방 초기 미국은 한국의 해방을 가져왔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운 근대적 선진국으로, 발전모델로 삼아야 할 나라로 생각되었다. 높은 과학기술과 선진문화로 이루어진 긍정적이며 우호적이고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이었다<sup>14)</sup>. 즉 1950년대까지 미

13)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첫 접촉에서부터는 약 150년, 국가간 공식적 관계수립부터는 124년, 해방 이후부터는 올해 61년이 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로 부각된 것은 1945년의 해방과 그에 이은 미군정의 실시 이후라 할 것이다.

14)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가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해방 전부터 이미 미국의 관심하에, 미국의 학계, 정계, 재계는 물론 포드재단이나 아시아재단 등을 통해 만들어진, 치밀하면서도 적극적인 대한민국 프로젝트 결과라는 연구에 대해서는 정일준(2005)을 참조할 것.

국은 한국의 해방자, 혈맹자, 후원자이며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 그러나 1960년과 70년대는 한미 간에 수많은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과거 혈맹과 우방의 이미지는 많이 훼손되었다. 양국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1969년 닉슨독트린 이후 주한미군의 수도 대폭 감축되었다. 이후 1972년 유신헌법발표와 박동선 사건, 그리고 카터 행정부와와의 인권논쟁 등은 이 불편한 관계를 더 강화시켰다. 이제 한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영향력은 미국의 국익과 입장에 따라 한계가 있으므로 지나친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곧 미국은 미국의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의 한국이어야만 했다. 미국은 우리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미국, 즉 한국의 타자가 되었다. 즉 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사회는 이상화된 미국의 이미지로부터 탈피를 시도하였고, 미국문명에 대한 일방적인 이미지는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김연진, 2005:22-26). 이어 1980년대 초 반미시위가 없었던 나라에서 ‘양키 고우 홈’의 구호와 함께 반미운동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반미는 미국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광주민주항쟁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군부세력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군부독재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이후 8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는 운동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미주의와 반미운동이 등장하였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역사적으로는 한국에 대해 지배를 추구해 왔던 제국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미국은 한국민주주의의 수호자도 아닌, 한국 민주화의 걸림돌이자 한국 분단의 책임자, 그리고 한국을 종속시킨 제국주의자로 보게 되었다.

1990년 들어오면서 미국의 강화된 수입개방 압력에 불만을 가진 산업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이상화된 미국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대학생들, 미국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반미의식이 확산되면서, 반미는 대중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한국이 IMF경제 관리하에 들어가면서 한국 내 미국의 영향력과 자본을 앞세운 미국적 기준의 강요는 세계화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세계화에 동참하나 이것이 결국 미국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기제이기에 미국화와 동일시되는 세계화, 세계화로 위장된 미국화는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면서 외부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9.11테러, 북한 핵위기, 내부적으로는 독극물무단방류, 용산기지 이전, 효순이 미선이, 작통권환수 그리고 한미 FTA 등으로 인해 한미관계는 더 심한 격랑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국사회 전체가 보수와 진보 논쟁에 휩싸이면서, 미국을 보는 입장은 더욱 미묘한 지점에 이르러, 주한미군의 철수논의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sup>15)</sup>

15) 2000년 이후 주한미군철수와 관련된 주요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제 미국화란 더 이상 한국이 추구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맞아야 할 그 무엇인가가 되었고, 남은 것은 정도와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 2. 근대화 성찰

### 1) 위험사회의 재인식

벡(Beck)은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 현대 산업사회의 원천은 기술공학인데, 바로 이 거대한 기술공학적 지식에 종속된 현대산업사회의 모습을 위험사회라 지칭하였다. 현대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제 일목표로 삼아 높은 생산성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지만, 그 기술이 안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반응을 보인다. 오늘날의 이런 위험들은 초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위험들과 달리 계산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한 위험들이다. 벡은 이 위험이 개인적 위험이나 특정 집단의 위험이 아니라 전사회적 위험임을 주목한다(울리히 벡, 1997:44;2000:66-67). 생태적 위험과 고도기술의 위험은 산업시설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위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든 생명의 자기파멸의 위험인 것이다. 벡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찰적 근대화모형을 제시한다. 성찰적 근대화란 자기의식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과 자기사회에 대해 지식을 비판적으로 적용시키는 능력이 늘어나면서 ‘산업사회 시대의 창조적 자기파괴가능성’ 이 열림을 의미한다.<sup>16)</sup> 이에 기초하여 지향되어야 할 것이 ‘생태적 근대화’ (Ecological Modernization)이다.

생태적 근대화란 발전된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산업화임을 뜻한다. 곧 자연자원 이용과 오염배출에 기초한 생태적 세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제가 자연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생태적 근

조사기관(조사일)	주한미군철수 시기에 대한 의견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 철수	즉시 철수	계속주둔/통일이 후에도 주둔	기타
한겨레(2000.5.15)	70.0%	6.8%	20.2%	3.0%
한겨레21(2000.7.13)	67.9%	11.3%	19.4%	1.4%
내일신문(2000.8.16)	74.9%	8.4%	13.5%	3.2%
한겨레(2000.9.24)	67.3%	10.8%	20.6%	1.3%
한겨레21(2002.3.12)	71.5%	12.9%	11.6%	4.0%
MBC(2002.8.15)	55.6%	16.8%	27.6%	0.0%
중앙일보(2002.12.19)	65.6%	6.3%	27.0%	1.1%

이를 분석해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시기와 방법에는 아직 많은 차이가 있으나, 단계적 철수든 즉시 철수든 ‘주한미군의 철수’ 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임찬경, 2003:81).

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현진(2000), 유문무(2004)를 참조할 것.



대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Lundqvist, 2000). 일반적으로 근대화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사회적으로는 도시화,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를 의미한다. 이 중 환경문제 발생의 원초적 원인은 경제적 산업화다. 그런데 근대사회가 추진해 온 근대화의 이 네 가지 요소들은 하나로 통합되어 진행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개별적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생태적 근대화는 경제적 요소 외에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소 모두를 환경이라는 명제하에 통합시켜 상호 유기적 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며 곧 ‘지속가능한 발전’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태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경제인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은 환경지속가능성평가를 통해 한국의 환경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지속가능성지수(ESI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sup>17)</sup>는 2002년에는 세계 142개국 중 136위를, 2005년에는 세계 146개국 가운데 122위로 집계되었다. 이 지수는 5개 분야에서 측정되는데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국제적 책임공유, 환경의 질, 환경위해 취약성, 환경오염 부하량이 그것이다. 한국은 2002년 대비 5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는 순위가 상승하였는데 2개 분야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환경위해 취약성(21위→67위)과 환경오염 부하량(138→146위)부문이다(허상수, 2005:33-34).

## 2) 기술주의적 입장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현대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조직체계의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재난발생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인체와 자연환경에 엄청난 해악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사회문제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현대적 기술은 핵폐기물에서 보듯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재앙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위험에 처하는 대중들은 위험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위험은 점차 심각성을 더해 가는 것에 비해 과학적으로 위험을 산정하거나 명확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즉 기술적 접근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이 점점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 소련의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 사건, 미국의 첼린저호 폭발사고, 한국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원인을 단지 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 결함에서만 찾기보다는, 이외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행정적, 문화적 요인들이 운영과정에 수없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17) 환경지속가능지수는 현재의 환경·사회·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국제평가지수이다. 산정주관기관은 예일대 환경법·정책연구소와 컬럼비아대 지구과학연구소이다.

(안형기, 2000).

이런 점에서 과학을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보지 않고 과학의 성장과 발전에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밀접하게 작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입장이다. 기술사회학(Techno-sociology)이라 할 수 있는 이 분야는 과학도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점을 갖는다 (Gameson and Modigliani, 1989). 즉 과학기술의 내용과 그것이 구성되는 인식론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험연구에 있어 학제적, 개방적 입장을 취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전의 기술주의적 접근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복잡한 기술체계나 조직의 안전이 파괴될 가능성, 즉 기술적 위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나 기술적 결합에 의해 특정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기술체계의 와해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술체계의 신뢰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간행위와 결과간의 상호작용관계는 단순한 통계적 확률과 예측된 평균으로만 이해될 수 없기에 기술적 접근은 위험의 사회적 요소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울리히 벡, 1997). 그러므로 위험관리정책은 실질적 위험수준뿐 아니라 시민들의 비합리적, 감정적 차원 그리고 인간행위가 운영되는 조직적 측면 역시 중요한 정책적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위험관리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책적 접근을 통하여 수행될 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3. 정부의 신뢰 제고

한국사회는 소위 개발주도형 발전전략에 따라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에 의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에 기초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일련의 경제개발계획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사회발전은 곧 경제 성장'이라는 등식이 사회의 지배적 관심으로 자리잡아 갔고 정치 및 사회문화와 같은 사회의 여타 부문들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발전요소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외형상의 계량적인 경제성장과는 달리 사회구성원간의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사회전체의 체제위기적인 증후군을 초래하였다. 사회안전망의 결여, 빈번한 사고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가족 해체, 학교붕괴, 그리고 사회적 도덕의 해이 등으로 인해 위기의 심각성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서문기, 2001:127-8).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이 표출화, 관성화되는 현상을 최대한 억제 또는 감소하기 위해 정부는 물리적 방법과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함께 강화시켜 왔다. 반공과 성장 이데올로기에 의한 적극적인 정치적 동원을 비롯하여 노동, 인권, 환경문제 등을 억압하여 농축시켜왔던 것이다. 이 억압기제에 기초한 성장위주의 압축적 발전 전략은 결국 1990년대에 이르러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지역간 계층간 격차의 심화 속에서도 그동안 줄곧 정부정책에 순응적으로 적응해 왔던 사회구성원이, 교육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방 등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위주 정책의 제반모순에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시민공동체에 의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현재 개발주도형 권위주의는 소진되고 민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강제력과 재벌의 경제 집중력 그리고 이들의 유착현상에 내재된 비공정성과 비민주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의 축적이 정부 불신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부패 및 정책불신은 지속적으로 무신뢰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부패지수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200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한국의 점수는 조사대상국 163개국중 42위로 10점 만점에 5.1을 받았다. 1998년 43위, 2000년 48위, 2005년 40위로 한국은 4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부패정도가 근 10여 년간 40위권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6년 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 정부행정의 효율성과 기업경영의 효율성은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각각 47위와 4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2006).

한편 2005년도에 발표된 세계은행 정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반적인 국정관리수준이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중하위권 수준이며,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가순위가 하락했는데, 테러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정치적 안정성 분야에서는 2002년 69위에서 2004년 84위로 15단계 하락했고, 정부관료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세계 38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또 범죄발생 가능성과 법치구현 정도를 평가하는 법의 지배는 47위에서 66위로, 부패통제는 65위에서 78위로 우리 정부의 순위가 밀렸다(조선일보, 2005.05.18).

최근의 정치적 불안과 정책실패 등은 전체적인 위기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과 일반 사회구성원간의 형평성을 벗어난 법의 심판 등은 사회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우선 국정운영을 둘러싸고 보

수와 진보에 관한 기본축이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중심이 형성되지 못한 채, 공공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도덕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물리적 힘을 강제하여 사회적 권력이 강한 특정 집단에게 편중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경기규칙에 따른 공정성 및 융통성을 결여함으로써 시장질서의 미확립과 취약한 재정구조, 그리고 각종 금융사고 등 부패현상을 초래하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수렴, 적용 문제가 바로 주어진 사회의 신뢰형성에 관건이 된다. 실제로 이 과정에는 정치 경제 사회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그 도덕성과 공공선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강화와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공공정책의 신뢰성 및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4. 시민사회의 성숙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와 제도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개혁의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Powell, 1998). 그러나 사회발전과정에서 달라진 위상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소위 시민참여 없는 상근자 중심의 관료적 운영과 성장 및 홍보위주의 전략으로 민주화운동가와 전문직 등 소수집단의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전문성보다는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사회운동단체로서 정치색을 상당히 내포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과도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성장하게 된 시민사회의 형성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중앙집권적 쟁점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지역적 쟁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대한 시민조직에서 풀뿌리 운동조직으로 다원화와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시민단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정치개혁 운동에서 일부단체에 의한 독점적 지위보다는 협력과 연대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시민언론운동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언론환경은 신자유주의적 언론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의 논리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언론들이 독자와 시청자의 확보에만 매달려 기사와 방송의 내용을 더욱더 선정주의, 폭로주의로 몰고 갈 뿐이다. 재난보도에 있어서도 위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에 접근하기보다는 위험 자체를 극화시키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다. 언론은 일반적으로 위험의 표피적인 모습만을 전달하고 있다. 위험의 출처가 존재한다는 것과는 어떠한 피해가 가능한가는 기술하지만 위험의 출처와 그 피해간의 원인-영향-상관관계의 규명이나 피해의 확률에 대한 언급은 물론, 위험을 정량화하는 일 그리고 위험에 대한 다양한 예측의 근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시도하고 있지 않다(임동욱,

1996). 이럴 경우 대중들은 위협과 재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재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시민언론운동은 언론제도와 이념의 검토, 공정보도와 알권리의 충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시청자의 참여를 위한 기회 확대, 시청자의 불만을 제작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추구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V. 결 론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재난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적 ‘정상성(normality)’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장치라면, ‘괴물’에서의 재난은, 현실적 ‘정상성(normality)’을 위협함으로써 이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전제장치라 할 수 있다. 재난영화에서의 정상성이란 ‘가족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사회제도 즉 정부, 경찰, 군대, 교회’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상성’이란 ‘지배적인 사회규범에의 순응’을 의미한다.

그러나 ‘괴물’에서의 ‘현실적 정상성’의 참모습은 ‘비정상성’이다. 왜곡되어 있고, 비틀려져 있고, 부패해 있고, 무능력하다. 그런데도 지배적인 사회규범으로 자리잡고 버젓하게 순응을 요구한다. 재난이 나타나기 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각의 상실’처럼 비정상성도 오래 건디다 보니 정상화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상성은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고발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즈음 괴물이 등장해 나태하게 잠들어 있는 우리 사고의 일상을 건드린다.

영화 속 ‘괴물’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한다. 평소에 우리주위를 둘러싸고 존재하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괴물의 등장과 함께 분명하게 그 본 모습을 나타내게 만들고 있다. 즉 어느날 갑자기 던져진 것이 아니라 재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있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그들의 필요에 의해 조작하는 미국, 무능력한 정부, 해체되어가는 가족, 세대 간의 단절, 무감각한 환경 파괴, 앵무새 같은 언론, 박제화된 시민단체 등이 바로 그 모습이다. 괴물의 출현과 함께 정말 괴물같은 이 사회의 현실이 고스란히 그 알몸을 드러낸다.

한편 할리우드의 재난영화가 구원적인 질서의 표상들을 복귀시킨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인 방향으로 기호화된다. 그런 점에서 재난영화는 고전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서사구조를 계승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마지막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사

구조는 수용자와 텍스트간의 교류를 통한 의미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권위에 의한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닫힌 구조를 이끈다. 따라서 관객은 재난 영화에 수동적인 상태로 이끌려가게 되고 결국 이데올로기적 수동성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이에 비해 괴물은 열린 구조의 성격을 띤다. 이 구조에서 작품은 그속의 언어, 이미지, 이념 등이 일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발화자를 수신자에게, 작가를 독자에게, 개인이나 집단을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연결시키는 문화적 의사소통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연계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괴물’은 넓게 보아 탈식민사회에 작동하는 제국주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영화를 통해 근대와 탈근대, 식민과 제국, 지배와 피지배, 주체와 종속, 정부와 시민 그리고 이것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권력의 배분과 작동에 관한 논의를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문화연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을 잘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문화를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되새김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는 지속적이면서 모순적인 사회과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주창윤, 1997). 따라서 문화연구는 구체적인 문화안에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내재해 있는 의미와 가치를 맥락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는 작업이다. 즉 권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적 맥락으로 문화를 되돌려 놓고, 그 맥락 안에서 권력 투쟁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다.

영화를 해석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권력의 배분, 권력의 변화, 권력으로 인한 변화 등을 찾아내는 일이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다. 더 나아가 텍스트 중심적이거나 해독중심적인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문화생산의 맥락과 역사의 문제에 천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화를 비롯한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의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영화를 분석하고 예술의 힘을 강조하는 수많은 논의와 주장들이 있다 해도 예술이 세상 그 자체를 직접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작업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있기에,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찬 전망을 해보기에 문화연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영화 ‘괴물’이 열린 작품으로 우리에게 던져 준 성찰적 함의는 그러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내영, 2000. 90년대 후반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문화제국주의에 관한 연구-아마겟돈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성곤, 1994. 김성곤 교수의 영화에세이, 열음사.
- 김연진, 2005. 한국언론을 통해 본 미국과 미국화:이미지와 담론, 미국학논집, 2005겨울호
- 마이클 라이언·더글라스 켈너, 1996. 카메라 폴리티카(상,하), 백문임 역, 시각과 언어.
- 박상진, 1997. '〈열린작품〉, 세계, 해석', 현대사상 통권4호.
-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제35집 5호.
- 씨네21, 2005.3. '봉준호 감독의 <괴물> 프리프로덕션 [4] - 감독 인터뷰', 씨네21 493호
- 씨네21, 2006.8. '전영객잔 3인, <괴물>과 <한반도>를 논하다(3)', 씨네21 567호.
- 울리히 백, 1997. 위험사회, 황성태 역, 새물결.
- 울리히 백, 2000. 지구화의 길, 조만영 역, 거름.
- 안형기, 2000. 위험관리의 사회과학적 당위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3호.
- 유문무, 2004. 위험사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안전사회, 경호경비연구제8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승구 외, 1997. 영화용어해설집, 집문당.
- 임동욱, 1996. 위험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 언론연구5권, 중앙대 언론연구소.
- 임찬경, 2003. 2003년 주한미군철수운동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견해, 아웃사이드11호.
- 임현진, 2000. 한국사회의 안전과 위험, 사회과학 제39권 제2호, 성대 사회과학연구소.
- 정성일, 2006. '노골적이고 단호한 정치적 커밍아웃, <괴물>', 씨네21 565호.
- 정일준, 2005.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미국 근대화론의 한국전파와 한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2005 겨울호.
- 주창윤, 1997. 문화연구 어디로 가나, 현대사상 통권4호.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2006. 부패인식지수발표에 즈음하여, 오마이뉴스, 2006.11.07.
- 황두진, 2006. '건축가가 본 봉준호의 <괴물>', 씨네21 566호.
- 허문영, 2006. '끝까지 둔해빠진 새끼들은 누구인가? <괴물>', 씨네21 566호.
- 허상수, 2005. 기술발달과 생태패러다임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현대사상, 1997,겨울호. 문화연구와 권력-특별대담, 현대사상 통권4호.
- 문화일보, 2005년 4월 29일자.
- 세계일보, 2006년 8월 23일자.
- 조선일보, 2005년 5월 18일자.

- Gameson, W.A. and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ve approach, *AJS*, Vol 95, No 1.
- Lundqvist, L.J.. 2000. The International Spread of Ecological Modernization Idea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Diffusion of Environmental Policy Innovations held in Berlin on 8-9 December.
- Perrow, C.,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Systems*, Basic Books, New York.
- Powell, W., 1998. *private Action and the public Good*. Yale university Press.
- Roberts, K. H., Introduction, Roberts(ed.), *New Challenges to Understand Organizations*. Macmillan, New York.
- Turner, B. A, 1978. *Man-Made Disasters*, wykeham Science Press, London.
- Umberto Eco, 1962. *Opera aperta : Formae indeterminazione nelle poetiche contemporanee*. Milano:Bompiani.



## ABSTRACT

### **A study on the Social Implication and Reflection on the Disaster in the Film - focusing on 'The Host'**

Yoo, Mun Mu

The Study on the Film, as the one of the main fields in the cultural studies, has the significant meaning in analyzing our society in that culture represents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society. Film is the metaphorically expressed text and the specific space where a variety of discourses cross. The director's social consciousness projected in the film must have the ultimate significance through the dialectic 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the director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audience, not through the his one-sided message to the audie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movie 'The Host', which is evaluated to show the meaningful social phenomena related to 'disaster' among the recent movies in Korea. The Host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open structure' can be referred to as the film reflecting the imperial order prevalent in the colonial society.

**Key Word: Cultural Studies, Disaster, Social Reflection, Post-colonialism, Imperialism**